

明使 龔用卿의 『使朝鮮錄』과 朝明 倡和 外交

김한규(金翰奎)*

요 약

『使朝鮮錄』은 明 世宗 嘉靖 16년(1537; 朝鮮 中宗 31년)에 황태자가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 正使로서 朝鮮에 파견된 翰林院修撰 龔用卿이 귀국한 다음 해에 중국에서 출판한 使行錄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조선의 迎詔 儀禮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영조 의례에 관한 明使와 조선 禮官의 논쟁 과정도 기술되어 있으며, 使行 연도에서 목도된 주변의 상황과 풍습, 특히 遼東의 정황에 관한 정보들이 다수 紀行詩에 내포되어 있고, 조선의 接伴使들과 나눈 다수의 倡和詩를 통해 朝明 양국 외교관들의 倡和 외교에 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冊封과 朝貢의 禮를 교환한 明과 朝鮮의 禮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明代 후기 遼東의 특수한 정황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고, 朝明 시대의 독특한 외교 양식인 倡和 외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使朝鮮錄, 迎詔儀禮, 倡和外交, 冊封-朝貢 關係, 咨詢

77

明使 龔用卿의 『使朝鮮錄』과 朝明 倡和 外交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I. 서론

文學之士 출신의 明使가 조선을 방문할 때는 으레 제각각 자신의 禮論을 개진하여 조선 측의 儀禮를 단속해서 朝明 양국의 禮의 관계, 즉 이른바 冊封과 朝貢의 禮를 교환하는 관계를 강화, 혹은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嘉靖 연간에 正使로서 조선을 방문한 龔用卿의 使行은 특히 이런 측면이 돋보이는 경우였다. 공용경은 翰林院 修撰으로 正使에 보임되어 황태자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 조선을 방문했지만, 선배 明使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의례를 단속하여 朝明 禮義 관계를 강화하려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명의 사신을 맞이하여 접대하는 갖가지 의례를 정리하여 그 기행문인 『使朝鮮錄』에 편성함으로써, 그 뒤에 조선을 방문할 후배 明使들에게 참고할 만한 의례 안내서를 남겨주었다.

『사조선록』은 상하 2권으로 나뉘져 있는데, 상권은 공용경 자신이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경험한 儀禮에 관한 기술로서 산문으로 이뤄져 있고, 하권에는 여로에 지은 수백 편의 시와 의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은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경은 특히 “詔勅을 받들어 맞이하는 예의와 오가는 것을 맞이하고 보내는 의식, 연회와 술을 주고받는 예절, 문물과 禮敎의 법도 등에 관해서는 모두 그 진상을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自序」), 뒤에 오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용경의 『사조선록』은 이후 조선을 찾는 明使들이 반드시 참고하는 필독서가 되었다.

龔用卿 일행은 조선을 방문해서 두 가지의 새로운 외교적 의례를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그 하나는 교외에서 詔書를 영접하며 ‘五拜三叩’의 禮를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서의 영접 행사에 生員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明과 朝鮮의 禮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공용경은 귀국한 뒤에 한중 외교상의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했으니, 그 하나는 이른바 膾黃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禮制에 관해 詔勅으로 천하에 고할 일이 있으면 그 나라 사신이 朝貢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詔告 한 부를 膳黃해서 그 나라 사신이 가지고 귀국하여 스스로 開讀하여 의례를 행하게 하였다. 또한 공용경은 한중 외교사 상에서 오래 묵은 숙제였던 이른바 ‘宗係辨誣’ 사건을 해결하는데도 일조했는데, 이는 그가 『대명회전』의 修撰者로 참여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明使 龔用卿과 그의 『使朝鮮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나,¹⁾ 이는 『사조선록』의 존재가 2002년에야 비로소 학계에 소개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사조선록』이 갖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 즉 迎詔 의례를 둘러싼 각종 禮論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정리함으로써, 전통시대 한중 冊封-朝貢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사조선록』의 사료적 가치를 확인할 것이다.

II. 龔用卿 出使와 『使朝鮮錄』 著作

龔用卿은 『明史』에 열전을 갖지 못했으나, 明人 林庭機가 쓴 「朝列大夫南京國子監祭酒龔公用卿墓誌」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公은 諱가 用卿, 자는 鳴治, 별호는 雲岡으로, 그 선조가 光州에서 閩 지방으로 들어와 호적에 올리고 정착하여 거주했다……. 공은 어려서부터 충

1) 龔用卿의 『使朝鮮錄』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駱安生, 「龔用卿『使朝鮮錄』의史料價値」(2002). 권인용, 「16세기 중국사신의 조선인식-龔用卿의『使朝鮮錄』을 중심으로-」(2005). 殷雪征, 「龔用卿出使朝鮮考述-以龔用卿『使朝鮮錄』與朝鮮『丁酉皇華集』爲中心」(2009). 낙안생의 논문은 공용경 『사조선록』의 존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그친 것이고, 권인용의 논문은 『사조선록』에 보이는 공용경의 조선 인식을 다룬 것이며, 은설정의 논문은 공용경의 詩文 唱和와 出使의 의의를 정리한 것이다.

명하고 커서는 문장을 잘 지었는데, 經史를 읽고 익힘에 한번 읽으면 빠뜨림이 없어 邑庠의 弟子員에 뽑혔다. 嘉靖 壬午년에 禮經으로 魁薦(=鄉試 壯元)했다. 丙戌년에 春宮에 올라가서, 大廷에서 對策으로 進士 일등에 급제하여 翰林院 編修가 되었다……. 戊戌년에 左春坊左諭德으로 발탁되었다. 그 다음 해에 上께서 東宮을 책봉하여, 翰林院 侍讀을 겸하여 經筵을 맡아서 매번 강의를 올렸는데, 그 뜻은 諷諫에 두었다. 황명으로 『明倫大典』과 『大明會典』을 편찬하게 되어, 공이 참여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金幣를 두 번이나 하사 받았다. 巳丑, 壬辰, 戊戌년의 會試에서 시험관으로 참여했다. 庚子년에 南畿의 시험을 주관하여 좋은 인재를 얻었다고 칭송되었다. 丙午년에 황명을 받들어 朝鮮에 사신으로 갔는데, 이때 一品服을 하사받았다. 조선에 다다라서는, 國恩을 선양하고 餽贐을 힘써 물리쳐서, 遠人이 감복했다. 復命하며 상소하여 三事を 아뢰니, 上께서 가납했다.”²⁾

이 자료는 공용경의 出使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하나는 공용경이 文名 높은 文學之士 출신의 侍從官이었다는 사실이다. 명에 사신으로 다녀온 蘇世讓은 “副使는 모르겠으나, 上使는 신이 赴京했을 때 들으니, 翰林院 修撰으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安南國에 사신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글 잘하는 선비로 가리는데……. 龔用卿도 才名이 있다 합니다”³⁾라고 보고했다. 출사 당시에 공용경은 37세였다. 황태자의 출생을 알린다거나 책봉 조서를 전달하는 사명은 명초 이래로 문학지사 출신의 翰林院 학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공용경의 출사도 이러한 관행을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공용경이 조선에 다다라서 국은을 선양하고 예물을 힘써 물리쳐서 조선인이 감복했다는 것이다. “국은을 선양했다” 함은 명분상으로는 황태자의 출생을 조선에도 알려주어서 조선을 중국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과

2) 明 焦竑, 『國朝獻徵錄』 권5.

3) 『中宗實錄』 31년 12월 8일 조.

시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행차에서 中國을 드높이고 예의와 법도를 바로잡았다”는 副使의 말(後語)처럼, 엄격한 禮論을 개진하여 명과 조선의 책봉-조공 관계를 단속, 강화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셋은 復命하며 三事를 상소해서 황제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으로, 공용경이 조선을 다녀온 뒤에 朝明 외교 관계상의 몇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使朝鮮錄』은 明 世宗 嘉靖 16년(1537; 朝鮮 中宗 31년)에 皇子가 태어난 것을 알리기 위해 正使로서 副使 戶科給事中 吳希孟과 함께 조선에 파견된 正使 翰林院修撰 龔用卿이 귀국한 다음 해에 중국에서 출판된 使行錄이다. 공용경이 이끈 명의 ‘嘉靖(16년에 조선에 파견된 명조의) 사절단’은 가정 15년 11월 丁巳일에 출발해서, 가정 16년 9월 庚寅일에 조정으로 돌아갔으니, 이 사행은 모두 약 10여 개월이 걸렸다. 漢陽에 도달한 시간은 가정 16년 3월 10일이었고, 7일간 머물렀다가 3월 17일에 한성을 떠나 4월 8일에 압록강을 건너고, 4월 15일에 『使朝鮮錄』을 완성했다고 한다.⁴⁾

龔用卿이 이끈 嘉靖 사절단이 떠날 일차적 사명은 황자 출생을 알리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 「『使朝鮮錄』序」에서는 “用卿이 제주도 없이 조정에서 선발한 명령을 받들어, 給事中 吳 醇君자와 같이 朝鮮에 사신으로 가서, 詔書로써 皇子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皇子’란 명 世宗의 둘째 아들, 王妃의 소생인 莊敬太子 載軫(재연)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4살 때 황태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정식으로 책봉되지 않았다. 단지 世宗의 첫째 아들이 죽은 뒤여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사실상 황태자로 여겨졌다.⁵⁾

柳詒徵이 1937년에 쓴 「跋文」에 의하면, “明 世宗의 장자 哀沖太子 載基는 閼妃가 낳은 지 2 개월 만에 殤하였고, 둘째 아들인 莊敬太子 載軫는 王

4) 『中宗實錄』 31년 12월 조; 『使朝鮮錄』 「自序」.

5) 『明史』 권120 諸王傳.

妃가 낳았는데,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대를 이을 태자처럼 간주되어, 교외 사당에서 제사지내며 아뢰고, 천하에 詔書를 반포하여 멀리 藩屬에까지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공용경이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조선의 故事에 대해 조정에 있는 여러 군자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조정에 있는 여러 군자들은 모두들 ‘없다’고 했다. 동쪽으로 와서 遼陽에 이르렀을 때, 지난날의 典故에 대해 담당 관리에게 알아보았지만, 담당 관리들은 아무것도 아뢰지 못하면서, 모두들 ‘없다’고 말했다. 서로 돌아보며 막막하여 알아볼 데가 없었다. 더구나 사람이 항상 왕래하지도 않고 의례가 항상 행해지는 것도 아니며 예전의 의전이 항상 알려진 것도 아니니, 그 까닭을 알아보려고 해도 역시 어렵지 않은가. 이는 더듬더듬 거리며 사물의 이치를 찾고 갈 길을 잃어 헤매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自序」)고 한다. ‘故事’ 혹은 ‘典故’란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先例, 혹은 慣例를 말한다. 이로 인해, 공용경은 “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그 나라의 영토와 산천, 교량, 관사 등을 찾아 물어볼 때마다 곧 기억해 두었다”(「自序」)고 한다.

공용경이 출사한 뒤에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목도한 儀禮와 정보를 책으로 저술한 까닭은 典故가 없어 당황했던 경험을 자신의 후배 明使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엮고 모으는 일이 이뤄진 뒤에 副使 吳希孟과 함께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을 했는데, 이때 그는 “뒤에 오는 사람이 참고할 만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잘못될 바가 없다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自序」)고 속마음을 밝힌 바 있다.

공용경의 이러한 저작 목적은 실제로 충분히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 3년 뒤에 明使 華察이 내방했을 때 영의정과 국왕이 이구동성으로, “천사가 항상 『사조선록』을 본다고 하니, 접대하는 일은 전일 龔, 吳의 때와 다르게 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⁶⁾ 遠接使 蘇世讓도 “두 사신은 항상 『사조선록』을 펴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산천과 누대가 없었으며, 그들이 지은 시

는 모두가 공용경의 시를 次韻한 것이다”⁷⁾라고 했다. 이후에도 계속 『사조선록』은 天使를 맞을 때 참고해야 할 필독서로 이용되었다.⁸⁾

공용경이 저술한 『使朝鮮錄』은 明使가 알고 있어야 할 出使 등의 의례에 관한 안내서와 같은 성격을 띠기도 했지만, 다른 明使들의 사행시문과 마찬가지로 사신으로 조선을 다녀온 뒤에 復命하여 아뢰는 보고서의 의미도 갖고 있었다. 『使朝鮮錄』 「後語」를 쓴 副使 오희맹은 “반드시 諮諏해야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나라에 도착해서 상하간의 예의와 도로의 경로, 영접과 환송의 차례 등을 모두 갖추어 쓰고 풍속을 채집했다”고 했는데, ‘諮諏’란 곧 ‘咨詢’, 즉 두루 물어서 살핀다는 사신의 기본 임무를 말한다. 실제로 『사조선록』의 조선 지리와 道里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 조선 측에서 제공받은 여러 地誌를 참고한 것이고, 의례에 관한 것은 『明史』 禮志에 보이는 여러 禮誌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권의 대부분은 공용경 자신이 조선에 사신으로 와서 경험한 儀禮에 관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明史』 「藝文志」에 “龔用卿 『使朝鮮錄』 3卷”이라 기재되었을 뿐, 淸의 『四庫全書』에는 수록되지 않고 단지 「別集」의 存目に “공용경의 『雲岡選稿』 20卷”이 기재되었고, 萬曆 연간에 출간된 『福州府志』 「文苑」에서는 공용경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있지만, 그가 조선에 사신으로 다녀온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뒤에 편찬된 『閩侯縣志』나 『福建藝文志』 등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937년에 「跋文」을 쓴 柳詒徵은 “아마도 명대에 새겨진 이 기록의 판본이 소멸되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1975년에 古典刊行會에서 柳詒徵의 1937년 影印本을 저본으로 하여 『使朝鮮錄』을 출판했다. 『사조선록』에 편집된 공용경의 시문 다수는 『皇華集』으로 조선에서도 출간되었다.

6) 『中宗實錄』 34년 4월 5일 조.

7) 『中宗實錄』 34년 4월 7일 자.

8) 『宣祖實錄』 35년 3월 6일 자.

III. 迎詔 儀禮 論爭

倪謙이 文學之士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正使로 선발되어 조선에 파견된 이래로, 역대 문학지사 출신 明使들은 언제나 禮論을 개진하여 조선과 명의 禮의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였다. 景泰 원년(世宗 즉위 32년, 1450)에 조선에 출사한 예겸은 왕세자의 出迎을 고집하여 조선의 禮官들과 힐항하였고,⁹⁾ 天順 4년(世祖 즉위 6년, 1460)에 조선에 출사한 張寧도 세자의 출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¹⁰⁾ 弘治 원년(成宗 즉위 19년, 1488)에 조선을 방문한 董越는 詔書を 맞이할 때 국왕이 輦을 타지 말고 말을 타야 한다고 주장하여 끝내 관철시켰다.¹¹⁾ 文學之士 출신의 明使 龔用卿도 그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입경하자마자 禮論을 전개하여 朝明 책봉-조공 관계를 단속하고 강화하였다. 『사조선록』의 말미에는 嘉靖 사절단이 압록강을 넘으면서 조선의 禮官들과 詔書を 맞이하는 의례에 대해 논쟁을 벌인 일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거해서 논쟁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사절단이 처음 義順館에 이르렀을 때, 조선의 禮曹 正郎이 와서 明使에게 儀注를 보였는데, 이를 본 공용경은 “국왕이 郊外로 나와서 단지 鞠躬만 하고 詔書を 맞을 뿐,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叩頭하는 의례는 없이 지나가고, 또 生員들이 나와서 조서를 영접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힐책했다. “詔書を 영접하는 의례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中國과 같지 않다. 또한 이번에 조서가 온 것은 사실 聖天子의 넓고 넓은 은혜를 낸 것으로, 통상적인 사례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만약 교외로 나와서 다섯 번 절하는 예를 먼저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임금을

9) 倪謙, 『遼海編』 「朝鮮紀事」.

10) 『世祖實錄』 6년 3월 2일 조.

11) 『成宗實錄』 19년 3월 10일 조.

공경한다 하고 예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生員과 같은 이들은 예를 익히고 성인의 가르침에 교화되어 감복하는 것을 봐야 할 터인데, 교외로 나와서 조서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禮敎는 이미 먼저 상실된 것이니, 어떻게 이를 두고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찌 中國에까지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사흘이 지나서 사절단이 平壤에 이르자, 예조 정랑이 다시 와서, “앞서 天使의 명을 받들어 이미 국왕께 전달하였다. 생원이 조서를 영접하는 의례는 삼가 尊命에 의해 더하여 넣은 것을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외에 나가서 조서를 영접하는 의례는 본국이 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어 마음대로 가볍게 고치기는 어렵다. 洪武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러했다”고 했다. 이에 공용경은 자신의 예론을 글로 적어서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禮曹 正郎과 禮에 대해 논한 문답의 말을 삼가 적어둔다. 뒤에 연일 禮官에게 예에 관해 강의했지만, 통역한 자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까 걱정되어, 특별히 여기에서 이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사조선록』에 수록되었다.

나흘이 지나 嘉靖 사절단이 寶山에 이르자, 조선의 禮曹 正郎이 와서 국왕의 뜻을 전하며, “국왕이 朝廷의 마음을 높여 공경함에는 다하지 않음이 없고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단지 전번의 儀注는 모두 예전에 행해 온 바에 의거한 것일 뿐, 감히 마음대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공용경이 “이번에 조서로 알린 것은 황자의 탄생인데, 이것도 舊例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정랑은 통역관을 통해 말을 전하며, “국왕이 어제 天使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小國이 바다 귀퉁이에 치우쳐 있어 다만 예전부터 내려온 예의만을 바른 것으로 알고 지금 말하는 것이 바른 예의임은 알지 못했는데, 하물며 천하에 이미 통행된 것이라면, 小邦이 감히 따라서 의거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마침내 의주를 바꾸어 가지고 온 것이다.

공용경은 귀국한 뒤에 황제에게 復命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보고했다.

“신 등이 顧命과 詔諭를 받들어 가니, 조선 국왕이 교외에 나와서 조서를 맞이할 때 五拜 叩頭의 禮가 없고 開讀하는 곳에 이르러서야 拜禮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生員이 조서를 맞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신 등이 그 禮官에게 ‘지금 天下가 조서를 맞이할 때는 모두 먼저 교외에 나가서 五拜와 三叩頭의 예를 행한 뒤에 宣讀할 때에야 開讀의 의례가 있다. 지금 너희 나라의 왕이 조서를 맞을 때는 먼저 五拜하지 않으니, 이는 천하와 禮가 다르다. 동일한 天子의 조서이고 동일한 천자의 신하인데, 어찌 예가 다를 수 있는가. 천자께서는 天下一家의 마음으로 너희 나라 왕을 대우하니, 예를 행함이 홀로 달라서는 안 된다. 더구나 조서가 처음 이르면 너희 나라 왕은 임금을 처음 뵈는 것이니, 그 공경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生員으로 말한다면, 孔子의 道를 받들어 인륜의 가르침을 밝히고 예를 익혀 교화를 보며 皇朝의 다스림에 온몸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교외에 나와서 조서를 맞지 않는다면 이치에 맞는 것인가. 너희 나라는 평소에 예를 지키는 나라로 일컬어졌는데, 위를 존중하는 예를 몰라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며, 반복하여 변론하며 여러 차례 타일렀더니, 그 예관이 신 등의 말을 갖추어 국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국왕이 그 禮曹의 관원을 다시 보내 말하기를, ‘지난날의 조서 맞는 의례는 본국에서 행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詔使의 말을 듣고 예의 바른 도리를 알게 되었으니, 감히 준수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儀注를 바꾸어 개정해서 교외에 나가서 五拜하고 叩頭하였고 生員이 모두 교외에 특별히 나가서 조서를 맞는 의례를 더 넣었습니다. 그날 예를 거행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 보았는데, 모두들 떠들썩하게 감탄하면서 ‘우리 皇上의 聲教가 먼 곳까지 미쳐, 개국 이래로 禮儀가 지금처럼 성대한 적이 없었다’ 고 했습니다.”¹²⁾

12) 『中宗實錄』 36년 10월 7일 조.

그러나 양자의 의례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明使가 한강에서 배를 타고 유람하고 있던 중에, 禮曹 正郎이 와서 세자가 배푸는 연회의 의례에 관해 의논하면서, 국왕이 배푸는 연회의 의례에 비추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 앉게 하고 싶다고 하니, 공용경은 즉시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향하는 것은 너희 국왕이 행한 예다. 세자도 만약 이같이 행한다면, 우리와 抗禮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는 아비와 아들 사이에 구별이 없는 것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순서가 없는 것이니, 어떻게 존비를 분별하고 사물의 광채를 밝게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연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 손이 동쪽에 앉고 주인이 서쪽에 앉으면, 이러한 예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대들 나라에서 무슨 까닭으로 이를 집행하려는 것인지 봐도 알 수가 없다. 이른바 손이 동쪽, 주인이 서쪽이란 것은 걸어갈 때를 가리켜 하는 말이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물며 세자는 아직 작위를 물려 받지도 않았으니, 이는 대신과 마찬가지로 처지다. 내 말에 의하면, 우리 두 사람은 윗자리에 있고, 왕세자는 동쪽 자리에서 서쪽을 향해 조금 북쪽 가까이 앉아서, 대신들과 구별됨을 밝히면 된다. 이렇게 하면 분수에 지나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또 그대들 나라 부자의 예를 다 지킬 수 있다.”

다음 날 조선 국왕이 정랑을 보내 말을 전하기를, “의논한 예가 매우 바르니, 이것에 의거해서 행하리라”고 했다. 이에 의주를 가지고 와서, 명의 정·부사는 마침내 남쪽을 향해 앉고 세자는 동쪽에 앉아 예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에 「後語」를 쓴 부사 오희맹은 “이번 행차에서 中國을 드높이고 예의와 법도를 바로잡아, 먼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깊이 얻었다”고 칭송했다.

이처럼 공용경이 집요하게 예론을 거론한 것은 책봉-조공 관계가 명분상 표방하는 ‘君臣’ 관계에 실질적 의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황태자의 출생을 조선에 알려주는 것이 ‘中外’를 구별하지 않기 위함이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연회에서 국왕과 문답한 말을 여기에 써

둔다」는 글에서, 공용경은 “조정이 皇子의 큰 경사를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천하가 일가라는 마음을 넓혀서 中國과 外國을 구별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했다. 勤政殿에서 茶禮가 끝난 뒤에도 공용경은 “그대 국왕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임금을 섬기는 몸가짐, 나라를 지키는 道를 보니, 中國 사람들이 모두 그대 나라를 禮를 아는 나라라고 칭송하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것임을 알겠다. 이후로도 웅당 이 마음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용경이 굳이 주장하여 실행된 이 五拜三叩의 迎詔 의례는 이후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朝明 책봉-조공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中宗 32년(1537)에 承政院에서 禮曹의 뜻으로 상주하여,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머리 조아리는 예와 유생들이 공경히 맞이하는 일은 辛巳 년(1521)에 중국 사신 唐臯와 史道 등이 강을 건너자 처음 말했던 것인데, 지금 중국 사신 用卿과 吳希孟이 問禮官을 보고 먼저 이 예를 물었다. 두 차례의 중국 사신이 모두 이 예를 행하니 일정한 격식을 정하소서”라고 건의했다¹³⁾ 하고, 宣祖 28년(1595)에는 禮曹에서 回啓하여,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는 비록 禮文에는 없지만, 龔用卿이 사신으로 온 뒤부터 이후 늘 칙서를 맞이할 때마다 이 예를 행하여 온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근래의 모든 迎勅 儀注의 관례대로 마련해서 아뢴다”¹⁴⁾ 고도 했다.

IV. 明使의 迎接 儀禮

공용경은 “(압록)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서, 그 나라의 영토와 산천, 교량, 관사 등을 찾아 물어볼 때마다 곧 기억해 두었다”가 귀국한 뒤에 “조칙을

13) 『中宗實錄』 32년 9월 4일 조.

14) 『宣祖實錄』 28년 3월 16일 조.

받들어 맞이하는 예의와 오가는 것을 맞이하고 보내는 의식, 연회와 술을 주고받는 예절, 문물과 禮敎의 법도 등에 관해서는 모두 그 진상을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헤아리지 않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차례지어” 저술하였다. 그 세 가지의 예란 곧 出使의 禮와 邦交의 禮, 그리고 사신의 임무였다. 공용경이 기술한 이 세 가지 예는 이후 朝明 의례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공용경이 이른바 ‘출사의 예’는 네 가지의 예로 분류되었으니, 그 하나는 詔書를 맞이하는 의례고, 그 둘은 조서를 열어서 읽는 의례요, 그 셋은 연도에서 조서를 맞는 의례며, 그 넷은 文廟를 알현하는 의례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출사 예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여 저서의 첫머리에 배치해 두었다. ‘邦交의 의례’는 여덟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그 하나는 국왕이 베푸는 茶禮고, 그 둘은 국왕이 접견하는 예절이었으며, 그 셋은 국왕이 연회를 베푸는 예절, 넷은 王世子가 연회를 베푸는 예절, 다섯은 대신들이 함께 뷔는 예절, 여섯은 국왕이 송별하는 예절, 일곱은 연도에서 맞아 위로하는 예절, 여덟은 연도에서 연회를 베푸는 예절 등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사신의 일과 교제의 의례라 하여, 그 다음에 배치하였다. 사신이 맡은 임무는 모두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서술되었으니, 그 하나는 여로의 거리, 그 둘은 산천의 경계, 셋은 각 道, 州, 府, 郡, 縣 등의 분류, 넷은 연도에서 진행된 각 관리들의 영접과 환송의 禮, 다섯은 軍夫가 遞送하는 예절 등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신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이라 하여, 그 다음에 서술하였다.

공용경이 『사조선록』에 기술한 이러한 의례는 대부분 明의 사신, 특히 詔使를 영접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공용경이 분류, 서술한 바와는 달리 사건이 전개되는 시간적 순서대로, 즉 明使가 입경하여 漢陽으로 들어가서 詔書를 반포하고 귀환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된 의례의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明使 일행이 조선에 입경한 뒤에 가장 먼저 이루게 되는 의례는 ‘出使之禮’의 ‘沿途迎詔儀’, 즉 연도에서 詔書를 영접하는 의례였다. 조서가 그 지방에 도착하기 5리 전에, 그 지방의 관원들이 각각 조복을 갖추어 입고 나와서 맞이했다. 執事者가 儀仗과 龍亭, 香案 등을 갖추고 조서를 맞이하여 용정 가운데에 안치하고, 악공은 악대를 갖추어 앞에서 인도했다. 관사의 문에 이르자, 王都에서 보내온 관원과 연회를 베푸는 자들이 모두 의관을 갖추고 비단옷을 입고서 몸을 굽히고 관문 밖에서 두 손을 맞잡고 서서, 조서가 관사의 중앙 대청 가운데에 이르기를 기다렸다. 有司가 가운데에 闕庭과 향안을 설치하고, 의장은 계단 아래에 서며, 일산은 당의 가운데에 있고, 부채는 동쪽과 서쪽에 나뉘어 있는데 역시 당의 위에 있었다. 각 관원들은 옆의 작은 문으로 들어오고, 贊儀가 “鞠躬, 四拜, 興平身”이라 소리치자, 각 관원들이 몸을 숙이고 네 번 절한 다음 몸을 일으켜 세웠다. 司香 두 명이 옆 계단으로 대청에 올라 세 번 향을 올렸다. 그것이 끝나자 찬의가 “국궁, 사배, 흥평신”이라 소리치고, 각 관원이 몸을 숙이고 네 번 절한 다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예가 끝난 뒤에, 각 관원들이 차례로 나가고, 유사가 꺾정과 향안을 철거했다.

義順과 新安, 安興, 平壤, 黃州, 開城, 碧蹄 등 일곱 곳에서 조서를 영접했는데, 관사의 문과 성문을 지날 때 모두 結綵하여 鰲山과 百戲를 진열했다. 다른 곳은 작은 군현이어서 이 같은 의례를 준비하지 못했다. 이들 중요 지역 7곳에서는 ‘邦交之儀’의 ‘沿途迎慰之節’, 즉 연도에서 영접하여 위로하는 예절이 진행되었다.

조사가 처음 義州館에 다다르면, 국왕이 判書나 의정부의 議政 등을 遠迎使로 삼아 보냈는데, 이를 두고 館伴이라고 했다. 따로 判尹이나 承旨를 迎慰使로 삼아 보내 안부를 묻게 하고, 그 외에도 또 司成, 司藝 등의 관원 두 명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 都監이라고 했다. 通事 네 명과 醫官 한 명이 각각 부리거나 말을 전하는 일 등을 맡아 했다. 그 뒤 詔書를 만나 접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모두 따로 의정과 참찬, 판서, 판윤, 승지 등의 관원을

보내 영위사로 충당하여 안부를 묻게 했다. 오직 벽제의 객관만 전보다 배나 많은 관원을 보내 6, 7명에 이르렀으며, 그 예절도 정중했다. 太平館에 이르러 판서 한 명을 관반으로 더 삼았고, 도감도 10명으로 증원하고, 예의도 더욱 정중했다.

詔使가 객관에 이르면, 각 관원들이 와서 뵈고 절하였고, 이 일이 끝난 뒤에는 매일 宴禮가 있었다. 이를 가리켜 ‘邦交之儀’의 ‘沿途設宴之節’, 즉 연도에서 연회를 베푸는 예절이라 했다. 조사는 堂의 북쪽에 남쪽을 향해 앉고, 원영사는 서쪽 곁에 남쪽 가까이 앉았는데, 혹 관찰사나 留守 등의 관원들을 만나면 모두 자리를 함께 했지만, 節制使 이하는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밖에 따로 영위사 등의 관원을 보낼 경우에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 연회의 의례는 벽제관에 이르러 상당히 성대했는데, 갈 때나 올 때나 모두 같았다.

沿途의 여러 관원들이 영접하고 환송하는 예절과 軍士가 차례로 호송하는 예절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平安道 觀察使는 義順館에서 영접하고 大同館에 이르러 헤어졌다. 黃海道 觀察使는 敬天館에서 영접하고 金郊에 이르러 헤어졌다. 京畿道 관찰사는 開城府에서 영접하고 碧蹄館에 이르러 헤어졌다. 그 屬官들도 그들을 따랐다. 송별하는 예절도 그러했다. 詔使가 일을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 관원들이 모두 慕華館에 모여서 송별했다. 또한 영접한 軍士는 모두 5백 명을 넘지 않았다. 義州 등지의 軍馬는 강가에서 영접하고 宣川郡에 이르러서 돌아갔다. 漢城府 등지의 군마는 영접하고 王京까지 호송하였는데, 갈 때도 올 때와 모두 같았다. 站夫와 가마꾼은 각 道를 경계로 하여 교대했다.

明使 일행이 漢陽으로 들어가면, 먼저 迎詔儀, 즉 詔書를 맞는 의례가 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하루 앞서 帳殿을 慕華館의 서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여 結綵하고, 迎詔門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 걸채했다. 또 승례문과 성안의 거리 및 景福宮의 문에 걸채했다. 국왕의 幄次를 모화관에 설치했다. 黃屋 龍亭을 장전의 정 가운데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香亭은 그 남쪽에 설치

했다. 국왕의 절하는 자리를 장전의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했다. 王世子의 절하는 자리를 장전의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문무백관과 유생들의 자리는 왕세자의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했다. 당일에 황금빛 儀仗과 金鼓를 준비하고, 典樂은 鼓樂을 준비해서, 모두 장전의 앞에 진열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詔使를 맞이하여 안내했는데, 곧 다다르게 되면 왕이 冕服을 갖추고 왕세자도 면복을 갖추었으며, 문무백관들은 제각기 朝服을 갖추어 입고 유생들은 평상복을 입고서 모두 절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조사가 詔書를 받들고 용정 가운데에 두면, 贊儀가 “鞠躬, 五拜, 三叩頭, 興平身”이라고 소리 내어 외치고, 국왕이 몸을 굽히며 다섯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몸을 일으켜 폈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이와 같이 했다. 용정이 길로 나서자, 司香 두 명이 향정 양옆에 서서 계속 향을 피웠다. 용정이 잠시 머무르자, 金鼓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기마대, 그 다음에는 유생들, 그 다음에는 문무백관들이 말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는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는 국왕이 가마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는 황금빛 의장과 악대, 그 다음에는 향정, 그 다음에는 조서와 용정, 그 다음에는 조사가 갔다.

국왕이 조서를 맞이한 다음에는 그 조서를 열어서 읽는 開讀禮를 진행하였다. 闕廷을 勤政殿의 정 가운데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詔案을 궐정의 앞에, 香案은 詔案의 남쪽에, 조사의 자리는 향안의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했고, 조서를 열어서 읽는 자리는 궁전의 계단 위 동쪽 가까이에 서향으로 설치했으며, 또 국왕의 자리는 궁전 뜰의 길 서쪽에 북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했다. 조서가 영접되어 경복궁에 이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왕세자가 동쪽 겹문을 통해 들어오고, 문무백관과 유생들이 동쪽과 서쪽의 겹문으로 들어와 모두 제자리로 갔다. 군사들이 들어와 평소의 의례대로 진열하자, 국왕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와 자리에 가서 서고, 황금빛 의장이 들어와 대궐 뜰 앞에 진열했다. 조서와 龍亭이 정문을 통해 들어오고, 詔使가 따라서 들어왔다. 協律郎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깃대를 들고, 악공이 柷을 두드려

서 음악을 시작했다. 국왕이 동쪽을 향해 몸을 굽혔다가 지나가면 몸을 펴고 북향해서 섰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유생들도 같이 했다. 용정이 궁전에 오르고, 왕이 작은 임시 거처로 들어갔다. 조사가 조서를 받들고 탁자 위에 놓자, 협률랑이 무릎 꿇고 깃발을 눕히고 엎드리며, 악공이 꺾을 두드려서 음악을 끝냈다. 引禮가 조사를 인도해서 자리로 가자, 국왕이 절하는 곳으로 갔다. 조사가 조금 앞에서 남쪽을 향해 서서 “制가 있다”고 하고, 贊儀가 큰 소리로 “鞠躬, 四拜, 興平身”이라 하자, 국왕이 몸을 숙이고 네 번 절한 다음 몸을 일으켰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유생들도 같이 했다. 음악이 그치고, 국왕이 서쪽 계단을 통해 향안 앞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고,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같이 했다. 시쵸이 향을 받들고 꿇어앉아 국왕의 왼편에 올리자, 국왕은 세 번 향을 올리고 몸을 굽혔다가 일어나 몸을 폈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그렇게 했다. 국왕은 내려가서 자리로 돌아갔다. 捧詔官과 宣詔官, 展詔官 등은 동쪽 곁 계단으로 올라와, 봉조관이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해 서고, 선조관과 전조관은 자리로 갔다. 조사가 조안 앞으로 가서 조서를 받들어 봉조관에게 주고, 봉조관은 꿇어앉아 받은 다음, 정문을 통해 나가 조서를 열어 읽는 자리로 가서 선조관에게 주자, 선조관이 꿇어앉아 받고서 전조관에게 주며, 전조관은 꿇어앉아 받은 뒤에 일어나서 마주보며 펼쳤다. 찬의가 “跪”라고 크게 소리치자, 국왕이 꿇어앉고,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이 그렇게 했다. 선조관의 조서 선포가 끝나자, 봉조관이 조서를 받들고 돌아와 조안에 놓고, 모두 내려가서 자리로 돌아갔다. 찬의가 “俯伏, 興平身”이라고 크게 소리치자, 국왕이 몸을 굽혔다가 일으켜 바로 섰고,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그렇게 했다. 찬의가 “鞠躬, 四拜, 興平身”이라고 크게 소리치자, 국왕이 몸을 숙이고 음악이 울리면서 네 번 절하고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그렇게 했다. 음악이 그치고, 찬의가 “拵圭, 鞠躬, 三舞蹈, 跪, 三叩頭”라고 소리치자, 국왕이 圭를 쫓고 몸을 숙이며 세 번 舞蹈하고 꿇어 세 번 머리를 조아렸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그렇

게 했다. 찬의가 “山呼”라고 크게 소리 지르자, 국왕이 손을 맞잡고 이마에 대면서 “萬歲”라고 하고, 山呼하면서 “만세”라 하고, 다시 산호하며 “만만세”라고 했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그렇게 했다. 찬의가 “出圭, 俯伏, 興, 四拜, 興平身”이라고 해서, 국왕이 규를 뽑아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났고, 음악이 시작되면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세웠다. 왕세자와 문무백관 및 유생들도 그렇게 했다. 음악이 그치고, 찬의가 “禮畢”이라고 외치자, 국왕이 장막으로 된 임시 처소로 갔다. 인례가 조사를 인도해서 나가 임시 거처로 가고, 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례는 문무백관과 유생들을 인도해서 차례로 나갔다. 담당 관청이 꺾정과 조안을 철거했다.

조서를 열어 읽는 일이 끝나면, 국왕이 詔使를 위해 차를 대접하는 ‘邦交之儀’의 ‘國王茶禮之節’, 즉 국왕이 베푸는 茶禮의 예절이 진행되었다. 그 날, 勤政殿에서 詔書를 열어 읽는 일이 끝나고, 담당관이 詔使의 좌석을 동쪽에 설치하고, 국왕의 좌석은 서쪽에 마련했다. 引禮가 조사를 인도해 중앙 계단으로 가서, 정문을 통해 동쪽으로 궁전에 올라 절하는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해 섰다. 국왕은 중앙 계단으로 가서 정문을 통해 서쪽으로 궁전에 올라 절하는 곳으로 가서 동쪽을 향해 섰다. 국왕과 조사가 몸을 숙이고 두 번 절한 뒤에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자리로 갔다. 司饗院의 관원 두 명이 과일 쟁반을 받들고 한 사람은 정사의 오른편 북쪽 가까이에서 남쪽을 향해 서고, 한 사람은 부사의 왼편 남쪽 가까이에서 북쪽을 향해 섰다. 提調가 과일 쟁반을 받들고 국왕의 오른편 남쪽 가까이에서 북쪽을 향해 서고, 또 제조 세 명이 鍾으로 차를 받아서, 한 명은 정사의 앞으로 올리고, 한 명은 부사의 앞으로 올렸으며, 한 명은 국왕의 앞으로 올렸다. 국왕이 차종을 잡아 정사 앞으로 가서 차종을 바꾸고, 또 부사 앞으로 가서 차종을 바꾸고 각각 자리로 가서 차를 들었다. 이 일이 끝난 뒤, 사옹원 관원 두 명이 나누어 조사 앞으로 가고, 제조는 국왕 앞으로 나아가서, 각각 빈 차종을 받고 과일 쟁반을 내어서 밖으로 나갔다. 다례가 끝난 뒤에 인례가 조사를 인도해서 동쪽 계단으로 내려가서 나가고, 국왕은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근정문 밖

에 이르러 배웅했다.

국왕이 明使의 숙소인 太平館에서 연회를 베풀 때는 ‘邦交之儀’의 ‘國王宴饗之節’, 즉 국왕이 宴饗하는 예절을 진행했다. 태평관에서 왕세자가 연회를 베풀 때, ‘邦交之儀’의 ‘王世子宴饗之節’, 즉 왕세자 연향의 예절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국왕이 베풀 때와 비슷했다. 연회가 있어 국왕이 詔使를 접견할 때는, ‘邦交之儀’의 ‘國王接見之節’, 즉 국왕이 접견하는 예절이 있었다.

여러 곳에서 조서를 영접하고 왕도에서 조서를 열어 읽은 뒤에, 여러 관원들이 參見했는데, 議政에서 判書, 參判, 參議, 觀察使, 承旨 등의 관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 번 절하는 의례, 즉 ‘邦交之儀’의 ‘陪臣參見之節’, 곧 陪臣의 參見 예절을 행하였다. 詔使가 일어나 절을 받고 답으로 읊하였다. 그 밖의 都監 등 관원들이 절하는 예절을 행할 때는 모두 자리 위에서 읊으로 답하였고, 지방에 있는 州牧과 郡守, 縣令 등의 관원들은 모두 앉아서 그 예를 받고 답하지 않았으니, 節制使조차도 그렇게 했다.

明使가 한양에 체재하는 동안, 빠뜨릴 수 없는 의례의 하나가 곧 ‘出使之禮’의 ‘謁廟儀’, 즉 文廟를 참배하는 의례였다. 詔使가 막 다다르려 하면, 諸生이 동문 밖으로 나와서 길 왼편에서 두 줄로 서고, 그 다음에는 四館, 그 다음에는 館官이 차례대로 서서 조사가 지나가는 것을 공손히 맞이하였다. 행차가 泮水橋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작은 임시 거처로 들어가서 잠시 머물렀다. 引禮가 동쪽 문을 통해 문묘의 뜰로 들어가 절하는 곳으로 갔다. 집사자 세 명이 동쪽 곁문으로 들어와 大聖, 즉 孔子 앞에 꿇어앉았다. 찬자가 “俯伏, 興, 四拜, 興平身”이라 소리치자, 조사가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세웠다. 館官이 明倫堂으로 들어갈 것을 청하고, 인례 두 명이 각각 조사를 인도해서 들어갔다. 館伴과 관관이 모두 자리로 간 뒤에, 관관이 茶禮를 행했다.

마지막으로 명사가 귀환할 때, ‘邦交之儀’의 ‘國王送行之節’, 즉 국왕의 송별 예절을 진행했다. 詔使가 일을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 날

국왕이 먼저 慕華館까지 나와서 조사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館門 밖으로 나와 영접하였다. 조사가 수레에서 내려 국왕과 읍양하고 들어갔다. 그 연회의 앓는 예절은 모두 下馬宴의 그것과 같았다.

위의 의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詔書를 영접하여 開讀하는 의례인데, 『明史』 권56 禮志 4의 「迎接詔敕儀」 조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다. “洪武 연간에 정해졌다. 무릇 사신을 파견하여 詔書와 敕書를 열어 읽을 때는 本處의 관원이 龍亭과 儀仗, 鼓樂 등을 갖추어 성곽 밖에 나가서 맞는다. 使者는 말에서 내려 조서를 받들어 龍亭 가운데에 놓고 남쪽을 향하고, 본처의 관원은 조복을 입고 五拜의 禮를 행한다. 여러 관원들과 고악이 앞을 인도하고, 사자는 말에 올라 용정 뒤를 따라 관청의 문에 다다른다. 여러 관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문관과 무관이 동서로 차례지어 서서 용정이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늘어서서 四拜한다. 사자는 조서를 받들어 展讀官에게 주고, 전독관은 꿇어앉아 받아서 開讀案으로 나아간다. 宣讀이 끝나면 조서를 받들어 조정의 사신에게 주어, 용정 안에 둔다. 여러 관원들은 四拜하고 舞蹈하며 山呼하고, 다시 四拜를 끝낸다. 반열의 우두머리가 용정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황상의 옥체가 萬福하신지 여쭙고, 사자는 鞠躬하여 ‘聖躬이 萬福하시다’ 고 답한다. 여러 관원들이 물러나서 옷을 갈아입고 사자를 뵈고, 兩拜의 禮를 행한다. 다시 鼓樂을 갖추어 官亭에서 詔書를 보낸다.”

이를 보면, 공용경이 迎詔할 때 五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禮制에도 없는 過禮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예관들이 “五拜가 禮文에 없다”고 한 것은 조선의 「儀注」에 없다는 뜻이지, 중국의 예제에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禮志」에는 오배가 있었는데 조선의 「의주」에는 五拜가 없었다 함은 곧 그때까지 조선에서 행해져온 迎詔 의례가 중국 내의 그것과 다른 殊禮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공용경이 五拜를 요구한 것은 곧 조선이 중국과 같은 의례 체제 안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것이었다. 공용경이 『사조선록』에서 남긴 迎詔 의례의 기록은 「예지」

의 짧은 기사가 생략한 정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선과 명의 禮的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 역사적 과정까지 보여 준다.

V. 唱和詩와 倡和 外交

嘉靖 사절단의 명목상 임무는 황태자 출생의 통보와 정보 수집 등 통상적인 것이었지만, 문학지사 정·부사의 문화적 역량으로 인해 朝明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인적 交遊를 통해 외교 관계도 일층 발전하였다. 무엇보다도 嘉靖 사절단은 전통적 唱和 외교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龔用卿과 吳希孟은 이전의 文學之士 출신 明使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입경한 뒤 돌아갈 때까지 조선의 遠接使 등 관원들과 수많은 시문을 膺酬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시문은 모두 453편(공용경이 241편, 오희맹이 211편)으로, 역대 明使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¹⁵⁾

공용경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의 君臣은 그 접대에 관해 의논했는데, 이때 遠接使로 임명된 蘇世讓이 “天使를 접대하기가 어렵다는 까닭은 그 사이에 문답하는 말을 아뢰지 않고 물음에 따라서 곧 대답하기 때문이며, 또 酬唱할 즈음에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이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자, 조선 국왕이 “다른 일은 모르겠으되, 그 가운데에서 수창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데, 수창하는 일을 잘한다면 나머지 작은 일은 혹 뜻에 맞지 않더라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正使는 長篇을 잘 짓는다 하는데, 이는 중국에서 정선된 사람일 것이니, 경은 힘써 대접해야 한다. 원접사는 처음에 鄭士龍을 시켰으나, 벼슬이 낮으므로 대신에게 의논하여 특별히 경을

15) 신태영, 『明 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다운샘, 2005), 26쪽.

차출하고, 정사룡은 迎慰使로 차출하여 보내어 영접하여 위로한 뒤에는 곁에서 돕게 하였다”고 했다.¹⁶⁾

공용경 스스로 조선 문사들과의 시문 창화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내가 조선에서 일할 때, 刑曹의 鄭 관서가 맞이하곤 송별하며 왕래하기를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좌우에서 수행하며 나날이 더욱 친분이 두터워졌고, 가고 서고 놓고 마시면서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또한 詩歌도 십여 편이나 唱和하면서 문장의 우아한 느낌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義順館에 이르러」 “아름다운 시문 만날 때마다 기이한 글자 보게 되는데, 이별의 술자리로 더 이어져 짧은 글을 짓는다. 藩京에서 침상 빌려 잔 것이 겨우 엿새였는데, 서쪽 가는 길에 다시 나눠 헤어져야 하니 건디기가 쉽지 않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嘉靖 사절단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唱和詩를 교환했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조선 국왕과의 내적 교유가 훨씬 더 돋보인다. 특히 공용경은 국왕이 증여하는 예물을 여러 차례 사양함으로써, 상호 존경과 예양의 교분을 쌓을 수 있었다. 「연회에서 국왕과 문답한 말을 여기에 써둔다」는 글에 의하면, 太平館의 연회에서 조선 국왕이 그 토산품을 내어서 증여하면서 통역관을 시켜 말을 전해 이르기를, “소국에는 존경을 표할 만한 것이 없다. 단지 구석진 海邦에서 나는 누추한 산나물과 해산물로써 한갓 미나리 정성을 표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明使는 이를 물리치며 “그대 나라 왕은 조정의 위대함을 공경할 줄 알지만, 공경의 지극함이 어찌 물건에 있겠는가. 공경은 물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을 뿐이다. 천자의 사신을 공경하는 것은 조정을 공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로써 공경하면 되지 어찌 물건이 국왕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충분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明使가 서쪽으로 돌아가며 車輦館에 이르자,

16) 『中宗實錄』 31년 12월 8일 조.

통역관이 다시 삼가고 성실하게 선물을 보낸 뜻을 설명했지만, 공용경은 받지 않고 “일부러 공손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대개 군자의 교제는 예의와 의리로 할 뿐이다. 현명한 번왕에게서 분에 넘치게 친절한 대접을 받았으니, 예의는 이미 지극하였고 의리도 벌써 극진했는데, 어찌 물건에 있겠는가. 군자는 물건으로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앞서 漢城에서 첩첩이 쌓인 은혜를 감히 갖추어 받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니, 현명한 국왕의 총명한 자질로 헤아려 주기 바란다”라고 사양했다.

공용경이 조선 측의 선물을 사양한 데 대해, 林庭機가 쓴 「龔用卿墓誌」에서는 “조선에 다다라서 國恩을 선양하고 餽贐을 힘써 물리쳐서, 遠人이 감복했다”고 특기했다. 공용경 자신도 청렴한 행동에 대해 여러 차례 시를 지어 자부했다. 「開城 太平館에 이르러」 “주머니에 가득 든 風月이 귀향하는 흥 돋우니, 문득 평생 동안 스스로 청렴했음을 믿게 된다”고 했다.

공용경은 예물을 사양했을 뿐만 아니라 女樂도 물리쳐서 자신의 도덕적 결백을 과시했다. 공용경은 이를 경계하여 조선에 입경하기도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관계 기관에 발송하였다. “조선국 일대에 있는 도로의 驛館에는 옛 풍속이 남아있어 부녀자들을 써서 응대한다고 한다. 실로 그 나라가 평소에 禮義를 준수하고 있음은 알고 있지만, 이 일은 의심을 살 만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비록 이전부터 사신이 이를 금하고 바꾸도록 한 바 있어, 근래에는 연도의 풍속이 이미 변하였지만, 실제 국가의 체모와 관련되고 명분과 절조와 관계되는 바이니, 이미 전해들은 것이기는 하지만 감히 일찍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遼東의 都司와 經歷司에 抄案을 보내 鎭東堂에 보고하여 해당 관리에게 일임해서, 案驗의 事理에 따라 즉시 공문을 보내, 사람을 차출하여 압록강 연도의 驛館들을 옮겨 다니게 하는 한편, 咨文을 국왕에게 보내 이를 금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驛館의 부녀자’란 곧 사신을 접대하는 女樂을 말한다. 『朝鮮實錄』에 의하면, 이 문건을 받은 遼東都司가 곧 조선에 그 문건의 일부를 발췌하여 보내었고, 이를 본 조선 국왕이 承政院에 다음과 같이 傳敎

했다. “天使가 강을 건너기도 전에 먼저 遼東의 大人으로 하여금 咨文을 우리나라에 보내게 한 것은 필시 우리나라에 紀綱을 보이려 한 것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또 연도의 驛館에서 부녀자가 접대하는 것을 금하랴 했는데, 이는 필시 女樂을 가리킨다. 전에는 여악을 미리 밖에 두었다가 天使에게 뜻을 물어 만약 안 된다 하면 들여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들여보냈다. 이번에 천사가 먼저 이를 스스로 금했으니,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여악을 쓸 수 없으면 男樂을 쓸 것인가.”¹⁷⁾

조선의 역관에 부녀자가 일하는 문제는 이미 朝明 초기부터 중국 측에서 거론해온 것인데, 이때 다시 거론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학지사 출신의 明使들은 환영 연회에서 女樂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 왔으니, 이 역시 예론의 전개를 통해 한중 문화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책봉-조공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용경과 오희맹은 국왕이 베푼 慶會樓 연회에 참석하여, 문학지사 출신의 사신이 할 수 있는 문화 외교를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국왕이 明使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다리와 소나무, 정자, 산, 연못, 섬 등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하자, 공용경 등 명사들은 다리 이름을 ‘長虹’이라 정해주고, 소나무의 이름은 ‘老龍’과 ‘盤虬’라 지었으며, 정자의 이름을 ‘凝秀’라 짓고, 白嶽山의 이름은 ‘拱極’으로, 仁王山의 이름은 ‘弼雲’으로 바꾸었으며, 연못의 이름을 ‘環碧’과 ‘玉液池’라 짓고, 작은 섬의 이름은 ‘雙洲’라 지어 주었다.

이처럼 화기애애한 교유는 외교적 화답으로 이어졌다. 당시 『大明會典』의 수찬에 참여하고 있던 공용경이 개국 이래 조선의 오랜 외교적 숙원사업이었던 ‘宗系辨誣’을 위해 애를 써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朝鮮實錄』에 의하면, 이 慶會樓 연회에서 ‘忠孝’ 2자와 ‘宣化’ 2자를 쓴 大字 두 장을

17) 『中宗實錄』 32년 2월 8일 조.

내놓은 공용경에게, 中宗이 宗系를 바로잡는 단자를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지난 翌日宴 때 『大明會典』에 관한 일을 알려 드렸고, 오늘 다시 이 단자를 드리니, 대인께서 잘 알아주기 바란다. 본국의 世系를 『대명회전』에서 잘못 기록하여, 永樂 2년과 正德 14년, 嘉靖 8년에 실정을 펴서 아뢰어, 여러 황제의 은혜를 입어 개정하도록 윤허한 聖旨가 분명했지만, 『대명회전』을 개정할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었다. 이번에 받은 은혜로운 글에 ‘同修大明會典’이란 직함이 있어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하게 된 것도 천운이지만, 修撰할 대인이 우리나라에 온 것도 천운이다. 대인이 이 明文을 보고 한 나라의 원통함을 씻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대해 공용경은 “내가 과연 『대명회전』을 수찬하는 관원이니, 당연히 이 일을 힘써 바로잡을 것이다. 우리가 上國에 돌아가면 尙書와 閣老들에게 자세하게 아뢰어 개정하여 전하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¹⁸⁾

『대명회전』에 李成桂가 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되고 이성계 부자가 고려의 네 왕을 시해하여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기재되어 발생한 이 ‘宗係辨誣’ 사건은 두 세기(1394-1588)에 걸쳐 조선의 5대 국왕과 25명의 사신이 19차례 주청했지만 오래 동안 해결되지 못했는데,¹⁹⁾ 마침 『대명회전』의 修撰者로 참여한 공용경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대명회전』의 이 기록은 명 太祖의 ‘祖訓’에 포함되어 있어 함부로 개정할 수 없는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明朝의 사정으로 『대명회전』의 改修와 간행이 萬曆 16년(宣祖 21년, 1588)까지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용경이 이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사조선록』에 조선국왕과 약속한 과정을 직접 기재한 것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그 약속과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

18) 『中宗實錄』 32년 3월 14일 조.

19) 殷雪征, 266쪽.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²⁰⁾

『사조선록』에 의하면, 근정전에서 茶禮가 끝난 뒤에 국왕은 승지를 시켜 말을 전하기를 “소국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朝廷을 섬김에 쓰지 않는 것이 없다. 무릇 도망쳐서 돌아오는 인구는 반드시 옷과 짐을 갖추어 돌려보내 上國 사람을 감히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明使가 이에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항상 들어왔다. 그대 국왕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과 임금을 섬기는 몸가짐, 나라를 지키는 道를 보니, 中國 사람들이 모두 그대 나라를 禮를 아는 나라라고 칭송하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것임을 알겠다. 이후로도 응당 이 마음을 더욱 굳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왕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왕은 그 할아버지가 李仁任의 후손이 아니고 『大明會典』에 네 명의 王 씨 군주를 시해한 것으로 쓰인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일찍이 여러 차례의 상주를 거쳐 개정을 허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고 했다. 명사들은 “조정의 밝은 명령이 있으면 이 일을 개정하는 것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왕이 “최근 嘉靖 연간에 『회전』을 다시 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에 근거한 밝은 명령을 내려달라고 다시 아뢰었다. 소국은 이 한 일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애를 썼고 마음에서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명사들은 이에 말하기를, “이는 자손이 감히 그 조부를 잘못 말할 수 없는 마음이니,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효도다. 만약 그 후손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면, 아뢰어 알리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20) 權仁溶의 「明中期 朝鮮의 宗系辨誣와 對明外交」에서, 龔用卿이 종계변무를 위해 약속한 뒤에 조선에서 辨誣使 권벌을 명에 보내 奏請하게 하고 공용경 등 明使 출신 관료들과 접촉한 과정을 정리하면서, 공용경 등 明使들이 보인 ‘好意’의 진정성을 의심하였다.(112쪽) 그러나 『中宗實錄』 35년 1월 6일 조에 의하면, 우의정 金克成이 “종계변무의 일은 주청을 허락받았으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다. 비록 이는 皇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龔 사신이 힘쓴 바가 많으니 마땅히 따로 禮幣를 보내어 사례해야 할 것이다”고 하고, 영의정 尹殷輔도 “龔 사신이 힘쓴 바가 적지 않다. 또한 대번 館所에 와서 보니, 人情物을 따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니, 당시 조선 측에서는 공용경이 실제로 종계변무를 위해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다.

조선도 이에 화답하여, 명사의 내방을 기념해서 신료들을 일괄 승진시키고 과거를 열었으며 빛을 탕감해주는 등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정량과 말로 나눈 것으로, 재미 삼아 여기에 적어둔다」는 글에서, 공용경은 “평양에 이르러, 판서 鄭士龍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賢王이 聖天子의 넓고 넓은 은혜를 받들어서 연회를 베풀고 모든 신하들을 일 계급씩 승진시키며 과거를 열어 士人을 얻고 밀린 빛은 탕진해준다고 한다. 정말 위로 조정의 마음을 본받아서 진정한 天下一家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심히 부럽다, 심히 부럽다”라고 했다.

공용경은 明朝로 돌아가서 조선에 대해 높이 칭양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부탁했다. 그는 明朝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조선의 문물과 예의 법제가 중국과 다름이 없다”고 극구 칭찬하였고, 명의 禮部尙書도 공용경의 말을 듣고 감탄해 마지아니하여 조선에서 온 사신을 보고 칭찬하기를, “그대 나라의 문물과 예의 법제가 중국과 다름없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고 했다 하고, 玉河館 主事와 序班들에게 주의시켜 “조선 사람은 삼가 소홀히 대하지 말라”고 했다²¹⁾고 한다. 聖節使로 명조에 다녀온 趙賢範은 “天使(=공용경과 오희맹)가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칭찬하며 권장했다. 이 때문에 禮部에서 신들을 대우하는 것이 지난날과 달랐으며 유람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모두 유람하도록 허락했다”²²⁾고 보고했으며, 聖節使 許寬은 “신이 燕京에 도착해서 오류 일이 지난 뒤에 자세히 들으니, 龔, 吳 두 사신이 조선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된다고 提督 易寬과 郎中 白悅에게 열심히 말했다고 한다. 얼마 안 되어 門禁이 해제되었다”²³⁾고 보고했다. 進賀使 李芑도 “天使

21) 『中宗實錄』 32년 11월 3일 조.

22) 『中宗實錄』 32년 12월 8일 조.

23) 『中宗實錄』 33년 11월 25일 조.



들이 모두 우리나라가 예의를 안다는 뜻으로 황제 앞에서 아뢰었기 때문에, 중국 조정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반드시 오랑캐라고 하더니, 지금은 사신이라고 했다”²⁴⁾고 보고하고, 千秋使의 通事도 “龔 사신은 예부의 主客郎中 許倫에게 ‘조선 사람은 常例로 대접해서는 안 되고 또 매우 청결한 사람들이니 더러운 館所에서 거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직접 가서 청소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허논이 직접 와서 세 사신을 찾아보고 관소를 청소하여 거처하도록 했다”²⁵⁾고 했다. 이러한 공용경의 조치에 대해 국왕도 “朝宗朝로부터 反正 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내왕한 천사가 비록 많으나 돌아간 뒤에는 전혀 안부를 묻는 일이 없었는데, 공용경과 오희맹은 돌아간 뒤에 안부를 묻는 일이 계속되어, 한갓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아래로 朝臣에 미쳐 그 뜻이 간곡하다”²⁶⁾고 인정해서, 그 보답하는 방법을 의논하기도 했다.

朝明 간에 이뤄진 倡和 외교의 성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공용경은 귀국한 뒤에 황제에게 上奏하여 膾黃 제도라 이르는, 朝明 외교사 상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하였다. 즉 그는 復命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는 禮制에 관해 詔勅으로 천하에 고할 일이 있으면 그 나라 사신이 朝貢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법식에 따라 詔告 한 부를 膾黃해서 그 나라 사신이 가지고 귀국하여 스스로 開讀하여 의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一統을 이룬 것을 빛내게 했으면 좋겠다”²⁷⁾고 건의하여, 禮部가 동의하고 황제가 허락해서, 이후 한중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공용경의 「墓誌」에는 그가 귀국해서 復命하며 “세 가지 일에 대해 아뢰어서, 上이 모두 가납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膾黃 제도의 실시가 그 가운데 하나였을 것임은 의심

24) 『中宗實錄』 34년 8월 24일 조.

25) 『中宗實錄』 34년 12월 6일 조.

26) 『中宗實錄』 33년 11월 28일 조.

27) 『中宗實錄』 36년 10월 7일 조.

하기 어렵다. 공용경은 조선에 체재하는 기간에는 여러 가지 儀禮 논쟁을 유발하여 관철시키는 등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서 조선 조신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귀국한 뒤에는 조선이 매우 예의가 바르고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칭송하면서, 禮部에 건의하여 조선 사신에 대한 접대를 격상케 하는 등 朝明 외교 관계에 적지 않게 공헌하였다.

VI. 嘉靖 使節團의 咨詢

가정 사절단의 임무가 황태자의 출생을 조선에 알리는 일이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가정 사절단도 다른 중국의 역대 사절단과 마찬가지로 사신의 일반적 임무인 ‘咨詢’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공용경은 사신의 임무를 서술하면서, 사절이 지나간 길과 관련된 곳에 국한하여 ‘道里의 거리’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義州 義順館에서 所串館, 龍泉郡 良策館, 鐵山郡 車輦館, 宣川郡 林畔館, 郭山郡 雲興館, 定州牧 新安館, 정주목 納淸亭, 嘉山郡 嘉平館, 정주목 安興館, 安州牧 雲巖院, 肅川府 肅寧館, 順安縣 安定館, 平壤府 大同館, 中和郡 生陽館, 黃州牧 貯福院, 黃州牧 敬天館, 鳳山郡 沙里院, 봉산군 同仙館, 봉산군 劍水館, 瑞興府 龍泉館, 平山府 安城館, 평산부 寶山館, 평산부 金巖院, 牛峯縣 興義館, 江陰縣 金郊館, 開城府 太平館, 長湍府 招賢院, 장단부 東坡館, 坡州牧, 高陽郡 碧蹄館, 楊州牧 迎曙館, 그리고 王京까지 모두 1,300여 리의 여정에 있는 31개의 객관을 모두 나열하고, 각 객관 사이의 道里를 “義州 義順館에서 所串館까지 40리다”라는 형식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이 기술이 정확하다면, 각 객관 사이 거리는 평균 약 42리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山川의 경계’에 대해 義州牧 義順館의 蘭子江과 箭門峴, 加豆等峴 등, 所串館의 所串堡(大冊城)과 古津江, 古津江院 등, 龍泉郡의 良策館, 鐵山郡 車輦館의 麻屹峴(鐵州城), 宣川郡 林畔館의 栢峴과 東林城(宣州城), 淸江, 小

國司峴(上山嶺), 五木院, 大國司峴, 加勿川, 同盧河 등, 郭山郡 雲興館의 郭山孝女碑와 松峴 등, 定州 新安館의 堂於嶺과 撻川, 白峴, 茄踰嶺, 加麻川, 納淸亭 등, 嘉山郡 嘉平館의 齊山亭, 曉星山, 西門嶺(石門嶺; 嘉山嶺), 大定江(大寧江; 博川江), 控江亭(敵愾亭) 등, 博川郡 廣通院의 楓浦, 安州牧 安興館의 淸川江(薩水), 百祥樓, 鳳德山, 柰峴, 雲巖院 등, 肅川府 肅寧館의 楓川과 新川院, 慈悲院, 小於波院, 小於波嶺, 大於波院, 大於波嶺 등, 順安縣 安定館의 巖赤川과 巖赤川院 등, 平壤府(西京) 大同館과 淸華館의 降福院, 斧山院, 普通院, 箕子墓, 大同江, 大同院, 浮碧樓, 乙密臺, 風月樓, 快哉亭, 先月亭(望月亭), 練光亭(城德岩), 栽松亭, 大井 등, 中和郡 生陽館의 馬駒峴과 馬駒院, 黃州牧 敬天館의 廣遠樓와 淸歡閣, 古城, 黑橋, 貯福院, 貯福橋, 草芝川, 棘城鎮 등, 鳳山郡 洞仙館의 沙里院과 樓橋, 環翠樓, 滌署樓, 劍水館 등, 瑞興府 龍泉館의 興水院과 大橋, 龍泉, 屏風巖, 車踰嶺, 高踰嶺 등, 平山府 安城館과 寶山館의 蔥秀山, 翠屏山, 崇水院(神水院), 甌山, 南川, 平山嶺, 滲嶺, 猪灘(沮江), 金巖館 등, 牛峯縣 興義館(臨沮館; 迎波館; 興義館), 吾助川 등, 江陰縣 金郊館의 脫彌谷, 開城府 狻猊館과 開城太平館의 高麗王故宮, 惠民局, 黃橋, 迎賓館, 松嶽(扶蘇; 鵠嶺), 安和寺, 王輪寺, 演福寺, 橐駝橋(萬夫橋), 南溪院, 青郊館, 天壽院, 吹笛峯, 吹笛橋 등, 長湍府 東坡館의 招賢院과 板積川, 板積橋, 吾目院, 柳峴, 榛嶺, 臨津江 등, 坡州牧 坡州館의 滴翠亭과 臨津亭, 黎川, 二京院, 二石將軍 등, 高陽郡 碧蹄館의 祥周院과 岐院, 新院, 德水川 등, 楊州牧의 迎曙亭, 漢城府 慕華館과 太平館의 綠蟠嶺, 弘濟院, 沙峴, 三角山(華山; 負兒山), 白嶽(控極山), 弼雲山(仁王山), 木覓山(南山; 仁慶山; 木蜜山), 蠶頭峯(龍頭峯), 楊花渡, 漢江(漢山河; 北瀆; 沙平渡), 望遠亭, 濟川亭, 露梁, 龍山江, 盤松亭 등, 각 지방 행정구역 관내의 산과 내뿐만 아니라 館院과 명승지, 유적지 등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龔用卿은 출발할 때부터 「北江 年兄의 운을 이어서」라는 시를 지어, “풍속 살펴 능히 賦를 지어 바쳐야하니, 子雲의 재주가 응당 부럽다”고 하여, 사신 본연의 임무를 상기하였고, 漢陽에 이르러서도 「太平樓에 올라 지은

賦」에서 “백성의 풍습 채집해서 우리 일에 종사하니, 공무에 사역되어 지친다 감히 말해도天心이야 기뻐하지 않겠나……. 그 지역 풍습을 참詢하러, 홀로 사방을 두루 찾아 내달렸다”고 노래했다. 또한 일을 마치고 서쪽으로 돌아가며 평양에 이르렀을 때 許沆 參判으로부터 許氏 가문의 문집인 『陽川世稿』의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周官은 시를 채집하여 민간의 풍속을 살폈는데, 비록 마을의 보잘것없는 백성일지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는 天朝의 사신으로, 물어보고 채집하는 것을 직무로 삼아 행차하여, 이 나라의 풍속을 채집해서 밝은 조정에 사뢰고, 소경 악사에게 일러서 聖代の 융성한 다스림을 환히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雲興館 동쪽 반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서있는 華表를 살펴보면서도 “내 황명 받들어 遼海를 지나오며, 곳곳의 토착 풍속을 애써 물어 채집했다”고 하면서 「郭山の 효녀」라는 시를 지어 애도했다. 따라서 공용경의 『使朝鮮錄』은 그 자체로서 ‘참詢’의 결과를 보고한 復命書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고 있어, 『사조선록』 下에 수록된 수백 편의 시문을 정리하면 가정 사절단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그 연도에서 관찰된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첫 시 몇 편에서는 출사의 목적과 의미를 주로 밝혔지만, 그 뒤부터는 연도에서 목격되는 풍광과 정황을 전해, 당시 遼東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게 한다. 예컨대, 東關驛과 高嶺驛을 지나 前屯衛에 이르러 「楊總戎이 여러 將校들을 거느리고 사냥하는 것을 보았고, 大凌河所와 十三山驛을 지나 廣寧에 이르자 「任都憲, 馬總戎, 王內相 등이 會府에서 연회를 열고, 孫正郎과 張僉憲 등이 모두 자리에 참석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세 분 公의 화려한 연회가 開府에서 벌어지니, 비단 자리와 무늬 요 깔리고 종과 북이 연주된다……. 中丞의 의지와 기개가 높은 하늘 타고 넘어, 맑은 바람 앉아 보며 遼土를 제압한다. 元戎의 위엄과 명망이 맹위를 떨치고, 담대하게 三軍을 호령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흰칠하다. 守臣은 두 눈동자 밝게 빛나니, 산뜻한 구름 옷이 홀과 인끈에 비친다. 地官은 호수와 바다를 가슴에 품고, 兵憲은 고상한 마음으로古今을 움직인다. 黃門은 雅量으로

취했다가 다시 깨어나, 좌석에 술잔 채촉하며 어지러이 농담 날린다. 용렬한 나까지도 칼 차고 따르다가, 술자리 즐기며 다시 金縷曲을 고른다. 동쪽 왔다 바닷가에서 기쁘게 서로 만나, 하늘 끝에서 머리 모아 함께 술에 잠긴다. 몇 길 높은 마루에서 醫巫閭山 마주보니, 열 지은 산봉우리 구름 빛이 술자리에 가득하다.”

明은 遼東이 “邊防의 重地라 하여 內臣에게 명하여 鎮守하게 하고 무관은 總兵官으로 충당하고, 반드시 都御史, 巡撫 혹은 提督에게 명하여 軍務를 도와 처리하게 했다.”²⁸⁾ 즉 洪武 7년(1374)에 요동의 세 都指揮使司 위에 다시 欽差鎮守遼東地方總兵官을 두어 요동의 군정을 총괄하게 하고, 永樂 연간에는 欽差鎮守遼東太監을, 正統 원년(1436)에는 欽差巡撫遼東都察院 都御史를 설치하여, 요동의 군사적 사무와 변경 사무 등에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이들 3자가 廣寧의 鎮東堂에 모여 공동으로 의논하여 결정하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都憲’은 곧 흠차순무요동도찰원도어사를 말하고, ‘總戎’은 흠차진수요동지방총병관, ‘內相’은 흠차진수요동태감을 각각 지칭한 것이고, ‘會府’는 곧 진동당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 시는 당시 명조가 遼東을 관리하는 체제를 잘 보여준다.

華表觀에서는 「道長이 苑馬와 太僕, 分守, 副總兵, 都關 등을 모아 (遼東) 都司堂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頭關站과 靑石嶺, 甜(恬)水站, 高嶺을 거쳐 鎮夷堡에 다라왔는데, 진이보는 “‘通遠堡’라고도 하고, 70여 家만 있었다. 작은 보루에 초가집이 모여 있고, 높은 산에는 척후병이 배치됐다.” 鎮東堡 “또한 ‘雪裏站’이라고도 하는데, 50명의 군사가 그 안에 있었다.” 鳳凰城에는 “5백의 군사가 머무르며 지켰다.” 湯站에도 오백 명의 군사가 머무르면서 지키고 있어, “우뚝 선 외판 성이 萬山을 지키는데, 해협의 센 물결이 강굽이와 이어졌다. 中華 땅 다한 곳에서 서쪽 지역 굳게 지키고, 外國의 藩維가 바로 이곳에서 돌아간다……. 말 전하는 사졸과 변경 지키는 자들은

28) 『遼東志』 2 建置志.

이곳이 바로 東遼의 第一關이라 한다”고 했다. 清明節에 九連城을 출발하려다가 비를 만났고, 八站을 지나가며 “東遼의 여덟 驛站은 가기 어렵다 말들 하는데, 험준한 비탈이 백 번 꺾여 어찌 이리도 구불구불한지……. 지난 先朝의 正德 연간 생각하면, 오랑캐 기병이 동쪽 산으로 떼를 지어 몰려왔다. 변경 병사와 수비 장수가 살육을 당했으니, 길손이 길 가다 이를 듣고 얼굴 붉히며 마음 아팠다”고 회상했다.

이 외에도 『使朝鮮錄』에는 明使의 出使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한 예로, 이 문헌에 수록된 한 편의 공문서에 의하면 “암록강의 겨울 얼음이 굳고 두터워서 왕래하는 사람과 말이 모두 葦橋를 통해 건너간다고 한다.” 이에 공용경은 遼東都司를 통해 咨文을 조선에 보내, “즉시 적당한 인원을 파견해서 직접 江岸으로 오게 하되, 만약 강물이 흘러 통하면 곧 선박을 미리 준비해서 들어오고, 혹시 봄 얼음이 여전히 두꺼우면 앞에서 말한 갈대 다리를 반드시 설치해서 법에 따라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공문에 의하면, “앞서 禮部에서 각자가 家人과 書吏, 儒士, 醫士 등을 대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정·부사 각각 5명씩 모두 10명의 개인 수행원을 대동하였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VII. 맺는말

明使 龔用卿은 그의 使行詩文이자 復命書인 『使朝鮮錄』에서 조선이 文教와 禮義가 융성한 나라임을 누누이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는 「太平館에서 張掌科의 육십 韻을 이어」, “누가 말했나 구석지고 누추한 먼 나라가 보잘 것 없다고, 의관과 옛 풍속이 숭상되고 있음을 이미 보았다”고 조선의 융성한 禮教를 칭송했다. 孔子廟를 참배할 때도 시를 지어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구나, 그 제도의 융성함이며. 아름답구나, 그 문화의 정연함이며. 다르구나, 그 규칙의 절도 있음이며.” 공용경은 귀국 길에 餞慰使 許

沆에게 “閣老 李時常이 ‘東國은 禮義의 나라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 과연 그러하다. 다만 語音이 같지 않을 뿐이고, 그 나머지 禮貌와 문물제도는 모두가 중국과 같았다. 安南이나 琉球 같은 나라들은 비록 글을 해득한다 하지만 禮樂이나 법도야 어찌 여기와 방불이나 하겠는가”²⁹⁾라고 했다.

그러나 공용경이 칭송한 조선의 융숭한 문교와 예의는 箕子의 가르침에 기원한 것이었다. 그는 「연일 국왕이 판서와 승지를 보내 와서 안부를 묻기에」 “조선이 禮를 지킨 유래는 오래되었으니, 웅당 箕籒 알아 교화의 가르침을 실행했다”는 시를 지어 이를 기리고, 「孔子廟 참배기」에서 “箕子が 남겨준 좋은 풍습과 훌륭한 정치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했다. 箕子의 가르침으로 인해 조선의 문교와 예의가 융숭해졌다 함은 곧 조선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와 같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孔子廟 참배기」에서 “성인이道を 가르친 것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고 황제의 교화가 사람을 만든 것이 얼마나 융성하게 이뤄졌는지 볼 수 있으며, 箕子가 남겨준 여운과 유풍을 알 수도 있다”고 하면서, “무릇 이를 가리켜 도덕을 하나로 하고 풍속을 같게 한다고 하고, 이를 가리켜 수레는 바퀴 사이를 같게 하고 글쓰기는 문자를 같게 하며 행동은 도리를 같게 한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조선의 문교가 기자의 가르침만으로 융숭해진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중국의 교화’가 조선을 예교의 나라로 만든 것이다. 공용경은 「鄭 判書의 『朝天日錄』을題하다」는 글에서, “지금도 여러 차례 우리 聖朝의 교화를 입어서 점차 연마된 지 오래 되어, 날마다 달라지고 달마다 바뀌었다. 그로 인해 말을 할 줄 아는 士人也 예전보다 더 많아져서 中國과 크게 멀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용경이 조선의 예교가 빼어난을 누누이 칭송한 까닭은 명과 조선의 전통적 책봉-조공 관계가 유지, 혹은 강화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龔用卿은 「鴨綠江을 건너며」 “이제부터 文風이 하나로 통일되고, 만년 藩屏이 皇家를 호위하리”라고 기원하여,

29) 『中宗實錄』 32년 4월 3일 조.

‘文風이 통일’ 되는 문화적 일치가 곧 ‘藩屏이 皇家를 호위’ 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는 「孔子廟 참배기」에서 이러한 기대를 숨김없이 토로하였다. “지금 東藩은 우리 皇明의 교화를 입어 慕華하고 의로움을 숭상한다……. 箕子가 남겨준 좋은 풍습과 훌륭한 정치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어찌 우리를 속이겠는가. 무릇 王室을 마음으로 따라 영구히 藩屏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성인이 가르치는 도의 큰 실마리인데, 오늘 날 조선의 군신이 적절하게 힘을 쓰는 것을 내가 이번 행차에서 모두 보았다.”

사실 공용경이 이끈 가정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한 이유, 즉 황태자의 출생을 알리는 일 자체가 바로 中外를 구별하지 않고 문물과 예악을 一統케 하려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太平樓에 올라 지은 賦」에서 “한 분의 큰 경사를 내리니, 四海가 아울러 함께 元良의 계승을 기꺼이 떠받든다. 거룩한 황제의 도량은 크고 넓어서, 萬方을 받아들여 휩싸고 밖으로 내치는 일이 없다. 朝鮮이 법도를 따른다 해서, 깊고 넓은 큰 은혜를 두텁게 베풀었다”고 하면서, “三代의 올곧은 道를 생각하면, 이 백성도 실로 내 同胞들이다. 어찌 저쪽과 이쪽의 간격이 있겠는가, 오로지 아래 위가 엇갈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했다.

또한 공용경이 조선에 이르러 禮官들과 儀禮에 관해 논쟁을 벌인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수레와 문자를 통일시켜 조선이 藩屏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寶山에 이르러 국왕이 우리의 말을 따라 교외에서 조서를 맞이하고 먼저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叩頭하는 예를 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기쁨을 적어 두었다」는 시를 지어, “聖代の 文風이 멀리까지 미쳐지니, 현명한 藩王의 禮敎가 넉넉하다. 수레와 문자가 밝게 통일되고, 예의의 규범은 여러 고을에 갈마든다”고 칭찬했다.

요컨대 龔用卿의 嘉靖 사절단이 조선을 방문한 것은 단순히 황태자의 출생을 알리는 데 의미가 국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中外, 즉 중국과 외국을 구

별하지 않고 황태자의 출생을 알려 함께 경하하게 하여, 조선이 중국의 禮義와 文化에 교화되게 해서 수레와 문자를 ‘一統’ 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선이 藩屏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잘 지키게 하고 冊封과 朝貢을 교환하는 명과 조선의 禮的 관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명초 이래로 冊封이나 皇太子 출생을 알리는 행사는 반드시 文學之士 출신의 近臣에게 위임해온 까닭이 여기에 있었으니, 翰林院 修撰 龔用卿이 이끈 가정 사절단의 역할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공용경이 조선에 이르러 禮論을 개진하여 조서를 맞이할 때 五拜三叩의 예를 취하고 生員을 참여하게 하고 귀국한 뒤에 騰黃의 제도를 주장한 것도 中外的 구별을 없애어 ‘天下 一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용경이 저술한 『사조선록』의 이러한 역사적 의미는 柳誼徵이 쓴 「跋文」에 잘 드러나 있다. 유이징은 嘉靖 16년 9월 庚寅일에 공용경과 오희맹이 조선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르기를, “조선은 평소에 공손하게 순종해서 여러 夷狄과 비교하면 같지 않다. 그래서 國家가 그 나라를 예우하는 것도 일찍이 이적을 대하는 예로써 대우하지 않았다. 근래에 조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갔더니, 그 왕 李鐸은 典禮를 삼가 좇을 줄 알고 공경하는 일에 어긋남이 없으니, 실로 칭찬할 만하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모든 詔誥와 敕諭 가운데 일이 禮制에 관련되어 마땅히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관리를 보낼 필요가 없고, 다만 그 朝貢하러 오는 대신에게 가지고 돌아가게 해서, 예의 있는 자를 기르고 멀리 있는 이를 품으려는 朝廷의 뜻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했고, 이로 인해 禮部에서 그 주장을 되풀이하여 황제가 허락했다고 하면서 “조선의 事大 의례는 이때에 가장 융성하였다. 恭僖 (=中宗의 諡號)는 비록 평범한 군주였지만,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경역을 평안하게 관할했다. 봉당의 화가 아직 짙기 전에, 倭寇의 무기가 여전히 거둬져 있을 때, 용경 등이 국가의 위엄으로 임하고 청렴결백한 절조로 빛나서, 그 나라 임금과 신하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쁠 정도로 두렵게 했다. 유생들이 조서를 영접하게 해서 예전보다 더함이 있게 하고, 安

南國 莫 씨의 교활하고 난폭함을 감히 본받지 못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역시 공용경의 『사조선록』은 중국인들에는 朝明 冊封-朝貢 관계의 典範으로 평가되었다.

가정 사절단의 정사 공용경과 부사 오희맹은 조선을 찾은 역대 明使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의 시를 남겼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의 문사 관원들과 賡酬한 唱和詩였다. 공용경은 倪謙 이후 문학지사 출신의 선배 명사들이 남긴 전통을 이어 倡和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한 것이다. ‘倡和’란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호응한다는 뜻으로 ‘唱和’, 즉 남의 시에 韻을 맞추어 화답의 시를 짓는 것도 ‘倡和’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지사 明使들이 조선의 遠接使 등과 시문을 唱和한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특한 외교 양식이라 할 수 있지만, 넓게 보아 서로 선창하고 화답하는 倡和 외교의 한 양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공용경은 일류 문학지사의 뛰어난 詩作 능력으로 唱和 외교의 전통을 적극 이었을 뿐만 아니라, 迎詔 의례 논쟁을 주도하고 黃曆 제도를 주창하며 朝明 간의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등 朝明 倡和 외교의 한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투 고 일: 2009년 12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01월 17일]

[게재확정일: 2010년 01월 17일]

참고문헌

- 권인용. 2005. “16세기 중국사신의 조선인식-龔用卿의 『使朝鮮錄』을 중심으로-”.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 인식』(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9).
- 권인용. 2005. “明中期 朝鮮의 宗系辨誣와 對明外交-權檢의 『朝天錄』을 中心으로-”. 『明清史研究』 24.
- 신태영. 2005. 『明 나라 사신은 朝鮮을 어떻게 보았는가』. 서울. 다온샘.
- 龔用卿. 明代. 『使朝鮮錄』.
- 駱安生. 2002. “龔用卿『使朝鮮錄』의 史料價值”. (福建師大 歷史系) 『東南學術』 2002(3).
- 殷雪征. 2009. “龔用卿出使朝鮮考述-以龔用卿『使朝鮮錄』與朝鮮『丁酉皇華集』爲中心”. (한국 중국어문학회) 『中國文學』 2009.
- 任洛. 明代. 『遼東志』.
- 張廷玉 等. 清代. 『明史』.
-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5. “中國關於韓國著述目錄”. 『中韓文化論集』 2 (『現代國民基本知識叢書』 3). 臺灣. 國立中央圖書館.
- 焦竑. 明代. 『國朝獻徵錄』.
- 春秋館. 朝鮮時代. 『朝鮮王朝實錄』.

ABSTRACT

Shi-Chosen-lu' by Envoy Gong Yo'ng-qing of Ming Dynasty and the Cha'ng-he' Diplomacy between Ming and Chao'-xian.

Kim Han-gyu

Dept. of History, Sogang Univ., Professor

Shi-Chosen-lu' is an account of travels written by Gong Yo'ng-qing(龔用卿) who was an envoy dispatched to Chosen(朝鮮) in the later Ming(明) dynasty. It was almost never researched by historians, but have several important values as the historical materials. It is a kind of poetic records about the envoy's passage and journey from Beijing to Seoul through Liao-dong, a collection of poems exchanged by Chinese envoys and Korean reception civilians, a record about the ritual disputes between Chinese envoys and Korean officials. By this account of travels, Gong give us a good few informations about the situation of Liao-dong and Sino-Korean relationships in the later Ming dynasty. In a reception ceremony of the imperial edict, through claiming repeatedly that Chosen king must bow five times before the edict, Chinese envoy Gong could tighten the relationship of the approval and tribute between Ming and Chosen. Like Chinese envoy led the poems and Korean literary officials responded the poems, using the 'Cha'ng-he(倡和)' diplomacy, Chinese envoy Gong and Korean king Joong-jong(中宗) led and responded the international politics together in harmony. Therefore in this thesis, not only these values as historical materials of Shi-Chosen-lu' will be confirmed one by one, but also several attendant informations about the traditional Sino-Korean relationship of the approval



and tribute will be ensured.

Key Words Shi-Chosen-lu' , the reception ceremony of the imperial edict, Cha' ng-he'
Diplomacy, Sino-Korean relationship of the approval and tribute, zi-xun